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 style="font-size: 2em; margin: 0;">새고려신문</h1>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8년 5월 18일(금) ... (율력 4월 4일) ... Пятница 18 мая 2018 г. № 19(11678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지난 12일(토)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약 80명의 1세대 어르신들이 모인 가운데 어버이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 재외동포: 회고와 전망〉학술회 개최

5월 21일(월) 사할린인문기술대학(전 유즈노사할린스크경제법률정보대학) 강당에서 〈사할린 재외동포: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학술회가 개최된다.

컨퍼런스에는 〈사할린 남부로 동원된 한인의 전후 법적 지위〉(아나톨리 쿠진 사할린철도대학), 〈재외동포들의 돌아올 권리에 대한 법적 자취-사할린을 중심으로〉(최경옥 한국 영산대학교), 〈한인디아스포라의 사회학〉(김영순, 사할린인문기술대학), 〈사할린 재외동포의 노스텔지아 연구〉(김영순·박봉수 한국 인하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재외동포〉(진 올리아 사할린주향토박물관)란 발제가 있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사할린한인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컨퍼런스에 초대한다. 시작은 오전 9시 30분이다.

사할린, 〈올해 가족〉 경연대회 시상

5월 15일은 "가족은 여러모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란 표어가 울려 퍼지는 국제 가정의 날이다. 이날 〈2018년의 가족〉 지역단계의 콩쿠르 시상식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인형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콩쿠르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아나와, 돌린스크, 포로나이스크 등지에서 거주하는 200 가정이 참가했다. 이들은 다자녀 가정, 젊은 가족, 〈사랑과 충성〉메달을 받은 부부들이다. 행사 참가자들에게 사할린주사회복지부 타치야나 로마네츠 차관은 "가족은 사랑과 선함과, 존경, 따뜻한 마음의 샘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시상식에는 20 가정이 참가했다.

〈젊은 가족〉부문에서는 세르게이와 알라 코스쥬코브 내외(돌린스크, 자녀3명, 결혼10년 차), 〈다자녀가족〉부문에서는 쩌모페이과 나탈리아 자에츠(유즈노사할린스크, 자녀 7명, 음악가정), 〈전통계승가족〉부문에서는 에두아르트와 올가 키컬로브(포로나이스크, 자녀 3명, 알타이민족 전통 지킴이) 가족이 수상하게 되었다.

5월 26일 농업박람회 열어

5월 26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승리광장에서 〈2018년 봄〉농업박람회가 개최된다. 사할린주농업부의 주최 아래 진행되는 이 박람회에는 주내 농장, 농장단지, 식품가공업체, 수산업체, 농기구판매점 등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람회에서는 채소, 고기, 생선, 유제품, 빵, 과자, 비알콜 제품을 비롯해 모종, 가축 등도 판매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오전 9시에 시작으로 오후 4시에 마감된다.

제9회 '키릴-메포지' 학술회 개최

5월 18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제9회 〈사할린 키릴-메포지〉실용과학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번 학술회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 교구 25주년 기념행사로 진행된다. 주최는 사할린주정부,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 교구, 사할린국립대학교이다. 행사는 좌담회, 원탁 모임 형태로 진행되고 학술회 일환으로 〈내 눈으로 본 정교회〉 사진 콩쿠르와 〈인생에서 신앙〉주제의 글짓기 콩쿠르를 열어 시상도 한다. 5월 15-16일에는 교구의 영적 계몽센터에서 교원들을 위한 교육세미나가 진행되었다고 교구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주지사, 쿠릴 방문

지난 15-17일간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유즈노쿠릴스크구역을 찾아 여러 시설을 방문, 주민들과의 만남도 가졌다.

15일(화) 쿠나쉬르섬에 도착한 주지사는 중앙구역병원을 방문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현재 좋은 장비를 갖춘 병원에 면적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즈노쿠릴스크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앞으로 병원의 추가건물을 건설하기로 했다. 유즈노쿠릴스크 구역병원 추가 건물 건설 외에도 쿠나쉬르 두보위에 마을에는 소진료소 건설에 공작수할 계획이 알려졌다.

현재 쿠나쉬르섬에는 의료 전문가 유치 문제도 긍정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섬에는 의료보조, 안과 의사, 신경과 전문의, 소아과 의사 등 18명이 내도했다. 쉬코탄 섬에는 본격적으로 수산물 가공공장을 2개를 건설하여 이곳에서 약 천 명이상의 근로자들이 일하게 된다. 유즈노쿠릴스크 구역에는 국경수비대와 군인들이 거주할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유즈노쿠릴스크 구역 주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진의 충원이 필요한 상태다. 현재 유즈노쿠릴스크 구역 병원에는 의사 총 31명 중 7명의 전문의가 쉬코탄에서 활동하고 있다.

쿠나쉬르에서 주지사는 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노후주택에서 이주' 프로그램에 따라 24세대 주택이 완공되어 코제마코 지사는 이날 있던 입주식에 참석했다. 오토라드노에 촌에서는 앞으로 임대아파트 300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날 주지사는 유즈노쿠릴스크 시민들과의 만남을 가져 〈멘펠레에워〉공항 운영시간, 섬 도로 건설문제, 교통, 의약품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

16일(수) 쉬코탄섬에 내도한 코제마코 주지사는 〈오스트로워크(작은 섬)〉유치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11석의 이 유치원은 쿠릴 사회경제발전 특별연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공되었는데 유치원 총면적은 약 3000m² 라고 전해졌다.

주지사는 생선가공공장 공사현장을 비롯해 여러 시설을 점검하고 오후에는 쉬코탄섬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전해졌다.

유즈노쿠릴스크구역 방문에 앞서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11일-12일에는 쿠릴스크구역을 방문하였다.

(사할린주정부
홍보실 자료들에서)

사할린, 국채 없는 러시아연방 2개 지방 중 하나

'리아 레이팅' 신용평가회사의 전문가들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러시아 지방 신용도를 평가했다. 섬지역과 연방도시는 국채가 없어 신용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기에 그 목록에 올라 있는 사할린주와 세바스토폴이 점수대신 별표를 받았다.

2017년에 러시아의 지방 대다수는 각자 신용등급이 상향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리아 레이팅' 신용평가회사의 전문가들은 특별평가제도를 이용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오직 국채감소와 지방소득률의 증가로 말미암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총 70개의 연방 행정구역 예산액은 세입과 기타 수입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부채부담이 적고 지방재정능력이 좋아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방들은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재정부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사할린은 석유·가스 수출·판매로 인해 지방재정능력이 최고지수로 나타나 전례대로 5대 지방에 속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외에도 섬지역 경제는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경제개발부 통계에 따르면 지방 내 총생산액이 위기인 해에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고려신문

2018년 하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어버이날 기념행사

1세 어르신들과 함께한 즐거운 놀이 <로또>, <제기 차기>, <김밥 만들기>

지난 12일(토)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약 80명의 1세대 어르신들이 모인 가운데 어버이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우미하일은 우선 5월 8일 한국에서 '어버이날'로 제정된 명절의 유래를 이야기했다. 이날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거나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 얼마 전부터 사할린 한인들도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인사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인사를 하게 된 사할린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은 어르신들을 따뜻이 맞아 축하하고, "자손과 이웃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장수하시며, 바라는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며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한인회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박 회장은 특별히 노동전선 참가자인 박 소피아 어르신과 한인문화센터에서 마사지봉사를 하는

배창복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 엘레나 아니스트라토와 홍보부장, 사할린 주 한인노인회 김흥지 회장이 축하하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재미있는 날을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했다.

한인문화센터에서 해마다 진행되는 어버이날 행사에 올해는 형태를 바꾸었다. 주한인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이번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장려금 지원을 받아 <노년층을 존중하며 삶을 지킵니다>란 기획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 기획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젊은이들에게 전통을 전수하고 젊은이들과 어르신들 사이에 과거, 현재와 미래와의 연결을 상징한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행사 참가자 대다수가 1세대 분들이었지만 이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는 젊

은층을 대표해 한 명씩 앉아 있었다.

이날 오락프로그램은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교수들이 담당했다. 사할린국립대 언어학·역사·동양학대학 학장 임 엘위라 한국어 교수와 사할린한국어 교원협회 코르네예와 인나 사할린국립대 한국어 교수는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로또 카드 놀이> 게임, <제기 차기> 경기를 준비했다. 로또는 한민족문화, 역사 등에 관한 질문에 그림으로 답하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카드 그림을 돌로 채운 사람이 우승했다.

<제기 차기> 게임은 팀별 경기 형태로 변형되었다.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은 발로 제기를 차기를 못해서 각 테이블을 대표해 어르신 4명씩 나와 보자기네 끝을 쥐면서 제기를 높이 날려야 했다. 열띤 응원과 즐거운 웃음이 터진 놀이였다.

마지막 경기는 김밥 말기였다. 각 팀에서 대표 1명이 나서 경쟁을 벌

였다. 알고보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집에서 김밥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딸, 며느리, 손녀들이 김밥을 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밥을 마는 법도 잘 몰랐는데 이날 봉사를 한 배영희 아나와한인회 부회장의 설명에 따라 이 과제를 잘 마칠 수 있었다.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놀고 움직이던 1세 분들은 주한인회 측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을 받으며 즐거워했다.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못 본 사이 안부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다. 이날 강팔용 동포가수와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 무용단의 공연이 신난 어르신들의 명절 기분을 돋우었다.

박순옥 회장은 <노년층을 존중하며 삶을 지킵니다>란 기획의 일환으로 어버이날 행사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마사지봉사, 기억력 향상 수업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 전국 '도서관의 날' 기념하다

5월 27일은 전국 도서관의 날이다. 매년 이날을 기념하여 5월 26일 주 일반과학도서관에서 '개방의 날' 행사를 펼친다.

활동의 일환으로 11시에 여러 행사들이 시작된다. 도서관 방문객들에게는 매력적인 관람이 될 현대식 도서관의 다양한 수단, 서비스, 정보자료들을 공개한다. 방문객들은 새로운 문학작품과 만남, 도서 전시회 관람, 흥미진진한 퀴즈에 참가해 기념품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도서관 관람객들은 <모든 가족들을 도서관으로> 기획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우너로 그림 그리기' 활동교실에 참여해 창작의 세계에 빠질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클래식 보컬학교 교장인 위탈리 쵸렌가르마예브가 주도하는 콘서트 프로그램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과 도시 방문객들에게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돋울 것이라고 도서관 측이 전했다.

Южносахалинцы отметят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библиотек

26 ма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состоится акция "День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посвящённа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му дню библиотек, который ежегодно отмечается в нашей стране 27 мая.

Старт мероприятиям в рамках акции будет дан в 11.00. Посетителей библиотеки ждут увлекательные экскурсии, в ходе которых будет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о многообразие ресурсов, услуг и возможностей современной библиотеки.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литературными новинками, посетить книжные выставк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увлекательных викторинах, получить памятные сувениры. У гостей библиотеки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окунуться в мир творчества, посетив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авополушарному рисованию,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ей семьёй в библиотеку".

Праздн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и гостям города подарит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от руководителя школы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вокала Виталия Цыренгармаева,

сообщает библиотека.

섬지역, '이것이 사할린이다' 사진 콩쿠르 개최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문학예술 박물관은 "이것이 사할린이다" 사진 콩쿠르의 출발을 알렸다. 콩쿠르는 러시아의 향토와 자연적,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 문제에 관심을 모으고, 사진작품들을 통해 주변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진행된다.

사진 접수는 5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된다.

콩쿠르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이뤄진다: '사할린 북방 원주민과 소수민족' 부문(소수민족이 보존하고 있는 문화의 독창성, 경제 운영의 전통, 공예와 자연과 연결된 가내공업을 밝히는 사진), '얼굴을 통해 본 사할린' 부문(사할린 주민들의 인종적 모습, 특히 이 부문에서는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찍은 사진 접수), '사할린의 자연' 부문(사할린의 자연과 동식물세계의 거대하고 다양한 자연들을 펼쳐보이는 장면들), '노동으로 영광스러운 사할린' 부문(섬 주민들의 근로사업과 근로 성과를 반영하는 장면들), '사할린의 스포츠' 부문(여가 스포츠로서 낚시와 건강한 생활상을 포함하여 스포츠의 발전상을 반영하고 스포츠적 생활의 특징을 나타내는 장면들).

각 참가자는 25개 이하의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와 사진은 이메일주소 (museumbook@mail.ru) 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미라 거리 104번지, 304호 주소로 접수된다.

콩쿠르에서 선정된 작품들은 사진첩으로 출판되며 사진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각 부문의 우승자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다.

'이것이 사할린이다' 사진 콩쿠르는 주 정부가 주최하고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문학예술 박물관이 주관했다.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тартовал фотоконкурс «Это Сахалин»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объявляет о старте фотоконкурса "Это Сахалин".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внимания к вопросам сохранения природ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России и родного края, а также воспита-

ния береж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через искусство фотографии. Приём работ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 14 мая по 14 июля.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в следующих номинациях: "Коренные и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 Севера Сахалина" (фотографии, раскрывающие самобытность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охранивших свою культуру, традиции ведения хозяйства, промыслы и связь с природой), "Сахалин в лицах"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портрет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а, в номинацию принимаются портреты людей крупным планом), "Природа Сахалина" (кадры, демонстрирующие величие и многообразие природы, животного и растительного мира Сахалина), "Сахалин славен трудом" (кадры, отражающие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и трудовые достижения островитян), "Сахалин спортивный" (кадры,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е спортивную жизнь, отражающие развитие спорта, в том числе спортивного и любительск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людей).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имеет право представить на фотоконкурс не более 25 работ. Анкета и фотографии принимаются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museumbook@mail.ru ил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оспект Мира, 104, кабинет №304.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будет выпущен каталог, также будет создана фотовыставка. Победители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получают диплом и ценный пр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м фотоконкурса "Это Сахалин" являетс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координатором выступил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사할린 학생들 '황금가면'과 '청동악보'상 수상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 푸시킨 김나지아 학생들이 <2018년 노래하는 음유시인> 제12회 전국 프랑스어 그림자 극 · 노래 축제에서 '황금가면'상과 '청동악보'상을 수상했다. 사할린의 학생들은 모스크바에서 '삼 형제의 전설' 그림자 인형극과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 중에서 한 대목을 공연했다.

5월 4일부터 7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8년 노래하는 음유시인> 축제에는 전 러시아 지역에서 20여 개의 팀이 참가했다. 극동지역에서는 사할린주의 제1 김나지아 학생들 12명과 영어 · 프랑스어 교사인 백 아리나가 대표했다.

학생들은 프랑스어 능력과 발음뿐만 아니라 음악 성과 연기력으로 예술 분야에서 경쟁을 벌였다.

<진달래>무용단의 훌륭한 졸업공연

지난 14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교장 위로호와 테.아.) 한민족문화예술과 발표회가 있었다. 이날 공연의 주인공들은 올해 <에트노스>학교를 졸업하는 <진달래>무용단 학생 8명(지 리자, 김미순, 김 알렉산드라, 권 알렉산드라, 이성욱, 박 아리나, 최 아리나, 조 수이니)이었다. 이들은 공연을 통해 졸업시험을 치렀다. <진달래>무용단(지도: 최경순 교사)은 <갈춤>, <조개춤>, <진도북춤>을 선보여 환호를 받았다. 졸업을 앞두고 수년간 학업을 통해 갈고 닦은 춤솜씨를 한껏 드러내어 아름다웠다. 이 무용단은 여러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다. 졸업생들은 <진달래>무용단의 단원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별거리>사물놀이팀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해왔다. <별거리>악단은 여러 콩쿠르 등에서 수상했는데 특히 최근 2년간 전국과 국제콩쿠르에서 대상을 3번이나 따냈다고 학교 측은 알렸다.

이날 공연 프로그램에는 졸업생 외에도 한민족과의 다른 무용단(지도: 김 엠게니아), 가야금악단(지도: 김 안나, 체오/조 나탈리아), 타악기 팀(지도: 신 울리아), 보컬 앙상블(지도: 체오/조 나탈리아) 등이 참가했다. 심금을 울리는 가야금 연주, 봄노래, 신명나는 장구소리, 케이팝 노래, 중학생들의 우아한 무용과 초등생들의 귀여운 손동작 등, 후배들의 모든 공연도 만족했다. 게다가 이들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의상은 인상적이었다.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부모님들의 분위기도 따뜻했다.

공연은 위로호와 교장의 축사, 교사들과 졸업생 소개, 참가자들의 인사로 막을 내렸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 이예식)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스스스한 어버이 날'

인천 사할린동포복지회관서 고령의 동포 88명에게 카네이션

8일 인천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강당에서는 어버이날 행사가 열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본부 직원 10여 명이 복지회관에서 생활하는 고령의 사할린 동포 88명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사할린동포들은 직원들이 준비한 고기, 과일, 음료를 함께 먹고 마셨다. 직원들은 '어머님은혜' 등을 불렀다. 매년 여러 기관이나 사회단체 사람들이 가족을 대신해 어버이날 행사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곳의 사할린 동포들은 착잡하기만 하다. 영주귀국한 이들 사할린 동포를 위한 국내 유일 요양시설인 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는 1999년 개관할 때 100명이 입주했지만 지금은 88명이 남아 있다. 입주 정원이 90명으로 준 데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평균연령은 85세. 100세도 3명이 있다.

이들의 소원은 여생을 사할린에 있는 가족과 자주 만나는 것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규정상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사할린 거주 주민만 영주귀국할 수 있다. 이들의 자녀는 거의 대부분 한국인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들이 사할린에 자주 가보기도 쉽지 않고, 자녀들이 방문해도 제대로 머물 공간이 부족하다. 운영 예산이 줄어들어 더욱 그렇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광복 이후 모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할린 잔류 한인들의 영주귀국을 1997년부터 추진했다. 이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 징용된 사람들이다.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1세 및 배우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1999년 양국 정부는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지었다. 한국 정부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소유의 땅을 제공하고 일본 정부가 건축비를 냈다. 운영은 대한적십자사가 맡았다.

운영비는 연간 약 13억 원. 한국 정부가 10억 원, 일본 정부가 3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양국 정부 협의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6년부터 3억 원 지원을 중단했다. 다만 이들과 사할린에 사는 가족들이 서로를 방문하는 사업은 계속 지원한다.

(7면에 계속)

사할린의 학생들은 하얀 스크린, 조명, 그림자로 변하는 종이인형을 사용해 '삼 형제의 전설' 공연을 펼쳐보였다. 이 이야기는 영국 소설가인 조앤 롤링의 '해리 포터' 시리즈에 속한 '죽음의 성물' 마지막 소설의 줄거리를 토대로 만들어진 공연이다. 세 형제가 여행 떠났다. 이들은 가는 길에 급류의 위험한 강가를 맞닥뜨린다. 이런 난관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대가로 각 형제들은 죽음에게서 성물 하나씩을 받는다. 하지만 죽음은 교활했고 죽음이 준 성물의 가치는 각각 전혀 달랐다.

사할린 학생들은 빅토르 휴고의 유명 소설을 토대로 한 '파리 성모 대성당' 또는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의 한 대목을 심사평가에 제시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여러가지 면 - 순결함과 왜곡, 진실과 거짓, 아름다움과 추악함 - 이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핵심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노래하는 음유시인' 축제에 사할린 학생들이 참가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백 아리나는 "2년 전, 이 대회에 우리 팀은 처음 참가했다. 이상하게도, 2016년에도 우리는 '해와 달의 전설' 그림자 인형극과 '로미오와 줄리엣' 뮤지컬 공연으로 '황금가면'과 '청동악보'상을 수상했었다. 지난 축제에 출전하여 독창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후 축제의 주최 측은 올해 우리의 참가 소식을 기뻐하며 손꼽아 기다렸다."라며 심사위원들의 의견상 우수한 공연을 보여준 팀은 프랑스에 초청된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기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제 1김나지아 학생들에게 그 행운이 주어질거라 본다는 견해를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завоевали "Золотую маску" и "Бронзовую ноту"

"Золотую маску" и "Бронзовую ноту" завоевали учащиес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гимназии №1 имени А.С.Пушкина на XII всероссийском фестивале театра и песни на французском языке "Поющий Менестрель — 2018".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оказали в Москве театр теней "Легенда о трех братьях" и отрывок из мюзикла "Нотр-Дам де Пари".

С 4 по 7 мая в Москве на фестивале "Поющий Менестрель — 2018" выступили около 20 коллективов со всей Росс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гион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 двенадцатью школьниками во главе с учителем английского и французского языков Ариной Бек.

Ребята соревновались не только в знании французского и его произношении, но и в артистизме, музыкальности, актерском мастерстве и др.

В постановке "Легенда о трех братьях" островные школьники при помощи белого полотна, света и картонных фигурок, которые стали тенями, представили легенду. Она основана на событиях из последнего романа из серии книг англи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Джоан Роулинг о Гарри Поттере "Дары смерти". Три брата отправились в путешествие. На их пути оказалась опасная бурная река. Им удалось преодолеть препятствие, и за это сама Смерть вручила каждому из братьев по подарку. Однако Смерть оказалась коварной, а польза от ее даров совсем не равноценной.

Сахалинцы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ли на суд жюри отрывок из мюзикла по мотивам известного романа Виктора Гюго "Собор Парижской Богоматери", или "Нотр-Дам де Пари". Это история о том, что образ любви может быть очень разным: чистым и извращенным, искренним и фальшивым, прекрасным и уродливым. Поэтому очень важно заглядывать в сердце, а не в лицо.

Это не первое путешествие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на фестиваль "Поющий Менестрель". Он проходит один раз в два года.

— Два года назад наша труппа впервые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этом конкурсе, — рассказывает Арина Бек. — Как ни странно, в 2016-м мы тоже завоевали "Золотую маску" и "Бронзовую ноту" за театр теней "Легенда о Солнце и Луне" и мюзикл "Ромео и Джульетта". Организаторы фестиваля обрадовались нашему участию в этом году после успешного и оригинальн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на прошлом фестивале. Они нас ждали с большим нетерпением.

Арина Бек также отметила, что коллективы, показавшие лучшие номера по мнению жюри, приглашают во Францию. И есть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этими счастливицами могут стать учащиеся гимназии №1 имени Пушки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사할린, 빵값 기록 갱신

사할린은 러시아에서 '바톤'빵값이 기록을 갱신했다. 러시아 식품품질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대규모로 전국 제빵 품질조사를 실시했으나 중대한 규정 위반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연구소 사이트에 공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돌린스크 제빵생산업체의 바톤은 향상된 품질의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식품상표는 러시아품질연구소의 선두적 표준에 해당된다. 현재 이 제품은 러시아품질

인증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극동연방구에서 구입한 바톤들은 몇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연구원들의 평가에 따르면 소비자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러시아품질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사할린 주 제빵제품의 생산업체 중에 표준 규정 위반 업체를 밝혔다. 코르사코브 제빵생산업체의 바톤에는 지방 함유율이 국가표준규정 함유율보다 낮으므로 품질 검증에서 불합격했다며, 그럼에도 극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바톤들 모두는 제빵의 개량 첨가물이 발견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하지만 북캅즈, 남부불가지역과 불가지역의 몇몇 제빵제품에서는 개량제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극동연방구에서는 사할린주가 유일하게 구분되는 점은 빵값에 있다. 러시아품질연구소에 따르면 바톤 한 개당 66루블리로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다.

Сахалин побил рекорд по цене на хлеб

Сахалин - рекордсмен по цене нарезного батона в России. Масштаб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хлеба в стране организовало Роскачество. Серьезных нарушений эксперты не обнаружил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исследований,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на сайте ведомства, батоны Долинско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признаны товаром повышенного качества. Продукция торговой марки соответствует требованиям опережающего стандарта Роскачества. Теперь этот товар - претендент на российский знак качества.

Остальные батоны, закупленные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имеют отдельные недостатки, которые, по оценкам экспертов, не играют роли для потребителя. Выявили специалисты Роскачества и нарушителя, производящего хлебобулочные издел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атон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не прошел проверку на качество: в нем количество жира ниже, чем того требует ГОСТ.

Тем не менее, вс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нарезные батоны эксперты признали безопасными - в них они не обнаружили хлебопекарные улучшители. Зато такие добавки специалисты нашли в батонах некоторых торговых марок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ого, Южного и Приволжского федеральных округов.

Единственное, чем отличился ДФО, а именн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цена на хлеб. Здесь Роскачество зафиксировало самую высокую стоимость нарезного батона в стране - 66 рублей за штуку.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Ученые обсудят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обсудят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21 мая,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Сахалинском гуманитар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 институте состоится конферен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етроспектива и перспектива». В не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ученые-исследователи Сахалина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СахГИТИ,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следующие доклады: «Послевоенный гражданский статус корейцев, колонизированных Японией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А.Т.Кузин, д.и.н., профессор, Сахалин), «Право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для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зако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 на примере Сахалина» (Цой Кен Ок, университет Енса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оциолог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им Ен Сун, к.э.н., Сахалин), «Сан-Францисск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и послевоенная судьба корейцев» (Дин Ю.И., к.и.н., Сахалин), «Исследование ностальгии(тоски по родин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репатриантов» (Ким Ен Сун, Пак Бон Су, университет Инхв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или Общество исследование миграции и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при Центре соци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ниверситет Инхва, СахГИТИ, РООСК.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исследован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Центра исследований миграции и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гук.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глашают всех, кого интересуют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чало в 9.30 утра.

Празднование "Дня родителей" состоялось в ККЦ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отмечали «День родителей». Этот праздник пришел к нам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оторой 8 мая начали отмечать с 1956 г., вначале как День матери, а с 1973 г., как День родителей.

В этот день принято дарить красную гвоздику,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символом Дня родителей, означающую любовь к родителям. В этот день принято выражать почтение ко всем пожилым людям.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этот праздник отмечают 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традиционно собираясь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 этом году формат праздника был изменен,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Уважая возраст, сохраняем жизнь».

Проект был разработан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стал одним из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на соискание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гранта "Мы и наш город". Авторы проекта "Уважая возраст, сохраняем жизнь" задумывали его как возможность вовлечь в активную социальную жизн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формировать для молодежи условия для общения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языке, передавать традиции.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поздравила всех родителей, а в особенности пожилых людей, с этим праздником, пожелала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и любви близким. В этот день она также поздравила с прошедшим Днем Победы участника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Пак Софию, поблагодарила Бе Чан Бок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массажного кабинета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поздравили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по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лена Анистратова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Ким Хон Ди, пожелав здоровья и активной твор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оценимую помощь в организации праздника оказала кафедра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СахГУ. Для гостей провели большую игровую и позна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й была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ая игра в лото, вопросы в которой были посвящены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Лото было разрабо-



тано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кафедры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специально к этому празднику. Традиционная игра «Деги чхаги» была адаптирована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и трансформирована в командную игру. А затем был конкурс на приготов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блюда «кимбап».

Победители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дипломами и призами. В этот день никто не остался без подарка.

По словам Пак Сун Ок,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Уважая старость, сохраняем жизнь» будут осуществлены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для корейцев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массажные процедуры, занятия по укреплению памяти), а также планируют выпустить пособие о традициях и обычаях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 -15.00

Юбилеи,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реклам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Островные тхэквондисты завоевали медали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Москве

В Москве прошли IV Всероссий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тхэквондо ВТФ Патриот 2018. Участниками ежегодного турнира по олимпийскому тхэквондо стало более 15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50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 Соревнования имели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подготовки спортсменов к предстоящему первенству России среди кадетов, которое пройдет в Нальчике в конце июля. Конкуренция была очень высокая, каждый хотел стать лучшим, — отметил тренер сахалинской сборной Сергей Л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едставляли 16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Холмска, Корсаков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младших юношей 10–11 лет и весе до 24 кг уверенную победу одержал корсаковский спортсмен Максим Ли (тренер Сергей Ли). Мальчик с легкостью одолел в квалификационных поединках соперников из Москвы и Башкортостана, а в полуфинале был сильнее представителя Ивановской обл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ец Лев Бобровский (тренеры Денис Ким и Чан Де Сир), также выступавший в этой категории, но весе 30 кг, стал бронзовым призером турнира.

По итогам состязаний также бронзу, в категории юниоров до 17 лет и весе до 45 кг завоевал южносахалинец Чан Хен Чер (тренер Денис Ким). На пути к медали он победил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Татарстана



и Москвы, но в полуфинале уступил еще одному спортсмену из столицы.

Еще одну награду в копилку островной сборной внес воспитанник холмской школы тхэквондо Михаил Идиатулин (тренер Ри Ин Сон), который выступил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53 кг, среди кадетов 2004–2006 гг. р. Спортсмен завоевал бронзовую награду турнира.

— Далее островные спортсмены будут готовиться к первен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кадетов 2004–2006 годов, которое пройдет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 июне, по итогам которого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а сборная региона на Первенство России, — добавили в областной федерации.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476 руб. 2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МИ Южной Кореи обвинили свою разведку в похищ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Олег Кирьянов

История с побегом два года назад 13 сотруднико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есторана в Южную Корею обросла скандальными подробностям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телеканал JTBS, ссылаясь на показания самих участников побега, заявил, что вся история была подстроена Национальн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службо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РС РК), а как минимум нескольких беглецов вывезли в Южную Корею без их соглас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пообещало разобраться в ситуации. Эксперты же отмечают, что если все это подтвердится, то сложится крайне неприятная для многих ситуация: НРС, получится, осуществила похищение людей, а самих беглянок теперь надо возвращать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Чтобы разобраться во всех деталях этого потенциально очень громкого скандала, надо представлять предысторию всей ситуации. В апреле 2016 г. в Южную Корею через Малайзию из Китая въехали сразу 13 сотруднико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есторана - 12 молодых женщин и 36-летний мужчина, все граждане КНДР. До этого они работали в ресторане "Рюгён", который откры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труктуры в китайском городе Нинбо в провинции Чжэцзян. Это стало одним из самых крупных случаев массовых побегов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Как оказалось, мужчина, который был по документам учредителем ресторана и должен был наблюдать за официантками, был завербован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азведкой. По официальной версии, большинство сотруднико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есторана в итоге согласились с мнением завербованного и решили бежать в Южную Корею. Помощь в этом непростом, в плане организации деле оказалась НРС.

Однако, еще тогда у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возникли ряд вопросов к свое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Во-первых, вопреки обыкновению, когда о подобных резонансных ситуациях сообщают значительно позже, чтобы обезопасить перебежчиков,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буквально сразу же после побега организовал максимальный пиар этого инцидента. Во-вторых, ни сразу, ни позже к перебежчикам спецслужбы категорически не допускали журналистов. В-третьих, несколько необычно повели себя и власти КНДР. Они признали, что мужчина стал предателем, а вот девушек - всех 12 человек - похитили. Сама по себе подобная позиция для Пхеньяна не является необычной, но далее власти КНДР продолжали вести себя активно, предложив Сеулу даже организовать поездку родственников беглянок в Южную Корею для личной встречи с ними, а также потребовали вмешательства ООН. Другие официантки, которые не сбежали и в итоге вернулись в КНДР, затем выступили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телевидению, сказав, что их подруг похитили.

У многих возникли подозрения, что руковод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где тогда у власти находилась консервативный президент Пак Кын Хе, которая уже стала проводить политику активного давления и максимальной изоляции Пхеньяна, попыталось использовать инцидент во внутри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их целях. Ожидалось, что ситуация с побегом докаже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олитики давления Сеула на Пхеньян и заставит людей проголосовать за консерваторов. Беглецы прибыли в Южную Корею 7 апреля 2016 г., официально об этом Сеул сообщил уже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 8 апреля, а выборы в парламент состоялись 13 апреля.

Кроме того, все большие подозрения вызывало и категорическое нежелание властей ни в какой форме не давать общаться перебежчицам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Перебежчица НРС охраняла по самому высокому уровню - "уровню Ка" (что-то типа "Уровня А" - прим. "РГ"), обычно так охраняют только очень ценных перебежчиков. Утверждалось, что "у девушек стресс", "они приняли свое добровольное решение, намерены жить на Юге и хотят начать новую жизнь, не желая ворошить прошлое". Встретиться с беглянками смогли только юристы, которые обычно допущены к делам с участием спецслужб. Адвокаты подтвердили официальную версию, по поводу объективности юристов из-за их статуса тоже были вопрос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дин раз допустили, но позволили лишь подтвердить факт наличия перебежчиц, что они живы-здоровы, но пр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побега поговорить не дали.

В итоге власти Юга заявили, что перебежчицы прошли стандартный курс адаптац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и они начали жизнь в качестве обычных граждан РК. Учитывая, что они были молодыми девушками, в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ли им поступление в те местные вузы, куда они пожелали.

С тех пор ситуация в самой Южной Корее сильно изменилась. Экспрезидент Пак Кын Хе была досрочно отстранена от власти и приговорена к длительному тюремному сроку. Президентом в мае 2017 г. стал Мун Чжэ Ин - известный борец за демократизацию, права рабочих и настроенный на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НРС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уличили во вмешательстве во внутреннюю политику, а ее бывший директор и ряд других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также отпраздновали в тюрьме за то, что не шпионов ловили, а пытались подавлять инакомыслие и старались организовать выгодные для консервативных политиков итоги выборов. Похоже, что теперь настал черед разобраться и с некоторыми загадками "массового побег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официанток".

Своего рода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бомбу" взорва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телеканал JTBS, который в жанре журналистск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 программе "Прожектор Ли Гю Ёна" (Ли Гю Ён - имя журналиста - прим. "РГ") попытался изучить ситуацию. Стоит сразу отметить, что именно этот телеканал сыграл важнейшую роль в ходе процесса импичмента с поста президента Пак Кын Хе, сумев представить ряд ключевых доказательств противоправных действий ближайшей подруги Пак. Теперь репортерам удалось таки пообщаться с участниками побега - как с мужчиной, так и несколькими бывшими официантками. Если говорить сразу о скандальных выводах, то НРС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рганизовала весь инцидент с целью влияния на исход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а как минимум нескольких девушек вывезли в Южную Корею без их согласия,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похитили.

В принципе, первая часть выводов - что инцидент был использован во внутри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их целях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ак Кын Хе - большой новостью не стал. Об этом ранее заявляли несколько оппозиционных изданий, но теперь лишь

стали известны подробности, а также весь сюжет с де-факто похищением людей. 36-летний владлец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есторана Хо Ган Иль, который был завербован НРС, теперь прямо признал, что "ситуация была спланирована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победы н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а "12 официанток вообще не знали, куда их везут".

По словам Хо, его завербовали в 2014 г., затем дали указание организовать массовый побег с участием официанток, чтобы "сделать удар по режим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За это Хо было обещано солидное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Хо намеревался вывезти из КНДР и свою семью, а потому все хотели провести 30 мая 2016 г.

Однако, по словам Хо, внезапно пришло указание все ускорить, и они выехали из Китая 3 апреля. "Я думал, что это все - крупная акция проти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днако все, как оказалось, было сделано лишь ради победы на всеобщих выборах. Я об этом узнал уже из новостей. Мне сказали, чт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гда оппозиция, выступала за более мягкий подход к КНДР - прим. "РГ") является пр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илой, а потому ее надо победить", - цитирует телеканал слова Хо. Собеседник предоставил журналистам на флеш-носителе отсканированные копии паспортов КНДР всех перебежчиц и своего, копии контракта о создании ресторана в Китае, различные фото и видеоматериалы с участием всех перебежчиц. Это было сделано, чтобы подтвердить его личность и причастность ко всей ситуации.

Он также пояснил и свое согласие выступить с разоблачениями, сообщить свое имя, хотя лицо на видеоматериале не демонстрируетс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разведка обещала ему солидное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за помощь в организации такого крупного побега, но затем все смешалось внутри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чался скандал вокруг президента Пак Кын Хе, который привел к ее отставке, руководство НРС стали вызывать на допросы. "Мне сказали, что из-за импичмента Пак и победы демократов трудно сейчас выплатить обещанную награду... Попросили подождать до тех пор, когда консерваторы снова придут к власти... Меня просто использовали", - признался Хо.

В программе также присутствуют записанные на видеокамеру интервью с четырьмя бывши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официантками. С них охрану уже сняли, а потому репортеры смогли их найти. Сначала пообщаться удалось уговорить одну, тогда как остальные отказывались, а потому она убедила еще трех подруг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ъемке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голоса будут изменены, в качестве имен указаны только фамилии (у корейцев много похожих фамилий - прим. "РГ"), а лица на видео - "замазаны". В итоге они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не знали, куда их везли. Они не знали английского, паспорта были у владельца - Хо Ган Иля, он занимался всем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и и прочими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ми делами. Они думали, что просто меняют место проживания, а сам ресторан переезжает в другую страну - Малайзию. "Когда мы вышли из такси в Малайзию, то увиде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лаг. Это было посо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Только тогда поняли, что нас повезут в Южную Корею", - сказали они.

Бывшие официантки заявили, что Хо в случае попытки сбежать из посольства сам сообщит властям КНДР, что они смотрели по телевидению в Кита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фильмы. Девушки испугались, и до сих пор утверждали, ч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 собственному желанию приехали в Южную Корею. "Хотя сейчас хочется вернуться к маме", - сказала одна из них.

В передаче приводится много и других подробностей всей этой детективной истории, где главным лейтмотивом является мысль, что ради внутри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их целей, победы н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похищение и вывоз в другую страну людей. Отметим, что вся эта история не помогла, а выборы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проиграла.

Если все сказанное - правда, т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спецслужба Южной Кореи занималась похищением людей, хотя до сих пор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общество обвиняло в этом именно КНДР. Помимо вопросов о юридической оценке таких действий, влияния на имидж Сеула, есть и другая проблема - что делать с теми, кто, получается, был обманом доставлен в Южную Корею. Их тоже возвращать в КНДР или как?

В одном из новостных выпусков телеканала JTBS, где анонсировался выход передачи, диктор сказал следующе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часто говорила, что ее перебежчики не сбегают, а их похищают наши спецслужбы. Перебежчиков уже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тысяч. Мы не верили Северу. Не верили, что наши власти способны на подобное. Но что же получается?! Если все это правда, то получится,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похищающее людей! В конце концов, кто дал указание похитить северян? А можно ли быть уверенными, что подобных случаев не было раньше? Мы обращаемся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 просьбой разобраться со всем этим".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уже отреагировали на выдвинутые обвинения.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журналистов,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ъ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явил, что все факты будут проверены и будут сдела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выводы. В то же время чиновник не смог прояснить, как придется поступить с теми, кто, как может оказаться, был обманом, против своей воли, доставлен в Южную Корею.

Примечание "РГ"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достояние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стал другой скандал с участием НРС.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в 1990-х гг. южнокорейская разведка смогла под видом металлолома вывезти из Камчатки несколько корпусов российских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и двигателей к ним,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были быть уничтожены, подпав под договоры о сокращении ракетных вооружений. Все это было доставлено в Южную Корею, в один из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центров и помогло корейским ракетчикам сильно продвинуться в деле развития собств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А скандал выплыл потому,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мен, который помог НРС устроить вывоз ракет, не получил обещанного вознаграждения, ему (по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им причинам) закрыли въезд в Россию, где у него был бизнес, тогда как южнокорейские разведчики отказались ему помочь решить проблемы.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Впервые за 20 лет на Сахалине запущена глубокая переработка мяса бройлера

Помимо охлажденного мяса курицы в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птицефабрики теперь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ветчину, пикантный рулет, куриные колбаски и так далее. Куриные деликатесы производятся в новом мини-цеху из бройлерного мяса под жестким контролем качеств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 Благодаря модернизации и переоснащению, наше предприятие теперь готово не только производить, но и перерабатывать мясо. Все делает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стровные потребители были по максимуму обеспечены местной полезной диет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ей. Кроме того, решается важная задача – улучшение качества питания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школах и больницах, - подчеркнул директор птицефабрики «Островная» Сергей Добреля.

Идеальную формулу будущих продуктов переработки искали много месяцев. Перед технологами стояла серьезная задача: сделать максимально натуральный товар. Все рецептуры на курином сырье, с содержанием до 98 % натурального мяса, остальное – спе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о разделено на 2 зоны. В первой занимаются обвалкой, крутят фарш и начинают им оболочку. Во втором охлаждают и коптят.

- Я сама большая привереда, покупая продукцию, внимательно изучаю состав, с сомнительными добавками не беру. Разработку рецептов наших колбас мы специально заказывали в новосибирском институте. Самым главным требованием было, чтобы они были максимально натуральными. Поэтому нашу продукцию можно спокойно давать детям, - делится начальник колбасного цеха птицефабрики "Островная" Вера Федоренко.

Сейчас в новом мини-цехе производят ветчину «Островную», колбасу копченую, куриный рулет, копченое филе. Есть ещё мясо под маринадом двух видов - в томатном соусе и белом чесночном соусе.

Этот небольшой цех в день может перерабатывать около 700 килограммов мяса птицы. Пок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мощности невысоки, деликатесная продукция поставляется в семь торговых точе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о уже летом нынешнего года на птицефабрике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ольшого современного цеха по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е мяса бройлера. С его открытием расширится и географи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дукции, и ее ассортимент. Цех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линию забоя и четыре линии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Первая - разделка, вторая - упаковка. На третьей линии будет производство пельменей, вареников, котлет. В четвертую линию войдет производство всевозможных колбас и копченостей.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ечение многих лет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питаться в основном привозной замороженной птицей. Мест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покрывало потребности в мясе птицы всего на 2%. Сейчас эта цифра выросла в пять раз.

На Сахалине запущен новый интерактивный проект для оператив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аселения и власти

Открыта принципиальная новая площадка для решения острых для жителей вопросов. Тестовым городом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ста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нтерактивный портал получил название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городом». (<https://gorodom.center/>)

Это открытая он-лайн площадка в Интернете на специальном сайте и в мобильном приложении. Механизм ее работы простой: горожане сообщают о проблеме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емонта детской площадки, открытый люк, яма на дороге и так далее). При этом обязательно указать точный адрес и приложить фото. Сообщение оперативно берется в работу курирующими ведомствами. Ответ о решении вопроса заявитель получает в течение десяти дней. Этот срок в три раза меньше, чем через официальный запрос. В работу по устранению проблемы при этом будут вовлечены вс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Жители города хотят, чтобы вокруг было чисто, опрятно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службы выполняли все взятые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а. Растет запрос на качественное выполн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ом функций, за которое граждане платят налоги и сборы. Об этом говорил 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о время инаугурации. Для более тес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бщества и власти и была создана данная интерактивная площадка. Теперь гражданину не нужно писать письма во всевозможные инстанции. И долго ждать ответ. Достаточно отправить обращение на сайт или через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 подчеркну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и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Попов.

Новая система - это сервис, который призван стать сахалинским аналогом московского проекта «Наш Город», который уже давно успешно используется жителями столицы для решения насущных проблем. Если система докажет свою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среди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роект будет распространён во всех городах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изведено более 3 тысяч тонн мяса, 8 тысяч тонн молока и 48 миллионов яиц

По данным статистики, на 1 мая 2018 года сельхоз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ено 8 339,4 тонны молока. Это на 6,7 % больш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7 года.

Продуктивность на одну фуражную корову за четыре месяца 2018 года по крупн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составила 2 020 килограммов (110,4 % к уровню 2017 года). Наибольшие удои на корову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получают в АО «Совхо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 – 2 297 килограммов; АО «Совхоз Заречное» (Томаринский район) – 2 098 килограммов; СПК «Соколовский» (Долинский район) – 2 022 килограмма.

Увеличение молочной продуктивности коров связано с улучшением кормовой базы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балансированных рационов. Благодаря улучшению племенной работы растут показатели по воспроизводству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В предприятиях области за четыре месяца достигнут следующий показатель производства мяса – 3 253,5 тонны (171,2 % к уровню 2017 года). Увеличение вало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мяса достигнуто АО «Мерси Агро Сахалин» (в 4 раза к уровню 2017 года) за счёт реализации второй очеред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ви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селе Таранай.

Поголовье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на начало мая во всех категориях хозяйств составило 22,7 тысячи голов (106 % к 01.05.2017), в том числе поголовье коров составило 9,2 тысячи голов (104,5 % к 01.05.2017). Рост поголовья коров связан с увеличением показателя в крестьянско-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ах (125 % к 01.05.2017).

Яиц с начала года произведено 48 893 тыс. штук (154,3 % к уровню 2017 года). Увеличение вало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яиц в АО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162,1 % к уровню 2017 года) наблюдается за счет реконструкции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омещений.

За 2017 год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локом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 медицинским нормам составляет 19,3 % (к 2020 году по плану увеличится до 26 %); мясом – 15,9 % (к 2020 году по плану увеличится до 37,9 %). Яйцом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селение обеспечено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Вопросы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обсудили будущие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и опытные врачи

Круглый стол, посвященный акту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остоялся в базов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олледже. К диалогу пригласил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ластны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фонда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Свои вопросы студенты старались сформулировать коротко, чтобы охвати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тем. Будущих медсестер и фельдшеров уже сейчас волнует развитие отрасли, санитарная авиация, работа меж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центров, особенности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а селе.

- Медицинск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организуется на селе, где население от 100 человек, там в наличии должен быть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й пунк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ют 73 ФАПа, для нас это очень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Мы модернизируем их постепенно, за последних три года построено 17 новых зданий, - сообщ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ариса Згурьева. - Кроме этого у нас активно работают выездные мобильные комплексы. В этом году автопарк этой спецтехники дополнили три передвижных рентген-кабинета.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основаны на собственном опыте студентов, за рамками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студенты сами являются пациентами и обращаются за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ью.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как прикрепиться к поликлинике, как регламентируются сроки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обследований, какие меры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предпринять по улучшению доступности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 У нас благодаря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е меняется ситуация,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о ней приехало 546 врачей. Эта работа продолжается, - отмечено на встрече. - При этом часто бывает, что человек почитал статьи в Интернете, поставил себе диагноз и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к какому специалисту ему нужно. А симптомы могут оказаться последствиями совсем других проблем. Поэтому предусмотрено, что на первичный прием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обратиться к участковому терапевту, а уже дальше он направит к нужному специалисту. Часто выявляются сопутствующие проблемы со здоровьем, о которых пациент и не подозревал.

Ученики колледжа спрашивали и о льготах,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для них при вступлении в программу. Подъемные для фельдшеров сейчас составляют от 400 до 600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медицинских сестер - от 270 до 405 тысяч. Размер выплат зависит от района, в который прибывает специалист.

-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было пообщаться, услышать аргументированные ответы на наши вопросы. Это позволяет посмотреть с разных сторон на ситуации, о которых здесь говорили. Хочется, чтобы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ходили почаще, - рассказал о своих впечатлениях от встречи сту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го базов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Антон Петров.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учится на фельдшера, но уже сейчас постигает азы профессии - помогает транспортировать пациентов 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станции скор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Какие качества для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ы считаете приоритетными? Так звучал один из фин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гостям. Ответ тоже был лаконичным -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любовь к своему делу, сострадание и выдержка.

На Шикотане ликвидирована очередь в дошко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ввода современного дошко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получившего имя «Островок», состоялась в селе Малокурильском. Ее главными героями стали будущие воспитанники дошко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которым было дано право разрезать традиционную красную ленту и затем первыми пройти в группы.

Новый детский сад с бассейном рассчитан на 110 мест. Двухэтажное здание построено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на 2016-2025 годы. Общая площадь всех помещений – более 3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первые для Шикотана дошко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получило бассейн. Учить детей плаванию в теплой воде с температурой 29 градусов и открывающимися живописными видами на бухту Малокурильскую будет штатный инструктор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 Сегодняшнее событие для острова трудно переоценить – с вводом нового детского сада на Шикотане полностью ликвидирована очередь в дошко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которая составляла более 90 человек, - рассказала заведующая учреждением Наталья Баравая. - Родители юных курильчан с огромным удовольствием несут к нам документы, очень хотят, чтобы дети ходили именно в наш детский сад. И неудивительно – здесь созданы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физического, умственного и эстет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бят. Помимо бассейна имеются прекрасные музыкальный и спортивные залы, современные игровые площадк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доски, медицинский кабинет и пищеблок. В садике будут открыты 6 групп, 2 из них – раннего развития для детей от полутора лет. Работу получают 40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том числе 18 педагогов.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новому детскому саду дали и жители Шикотана. Алена Караулова пришла на церемонию открытия с ребенком, которого заинтересовали игрушки и спортивный инвентарь – детские гантели и тренажеры. - Моему ребенку, как видите, тут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Пожалуй, это самая главная оценка качества. Тут все самое яркое и лучшее, - отметила курильчанка.

- Садик красивый, удобный, очень хорошее оснащение. Для нас – это настоящий подарок, - согласилась с предыдущим мнением еще одна жительница острова Александра Полянская. - Замечательная детская площадка на улице, имеющая безопасное резиновое покрытие и закрытая от ветра. Дети уже оценили ее по достоинству – с горок и тренажеров их невозможно увести.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ах «Сириуса»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родолжают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ах, которые проходят в «Сириусе» (г. Сочи).

Это право получают те школьники, которые демонстрируют отличные успехи в науках – математике, физике, химии, биологии и литературе.

В ма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на базе «Сириуса» стартовала майск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 биологии «Биомедицина», которая продлится до 22 мая 2018 года. В ней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Юлия Ким, ученица 10 класса лицея №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Юлия стала призером по биологии и победителем по экологии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этапе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С 1 по 24 июня 2018 года состоится очередная июньская математическ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Сахалинка Анастасия Дыдо, ученица 7 класса школы №2 г. Долинска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дан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Как сообщалось ра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писало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фондом «Талант и успех» – учредителе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Сириус», который был открыт в 2014 году на базе олимпий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г. Сочи.

В рамках эт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едется работа с талантливыми детьм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 Для них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ываться бесплатные занятия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профильные смены, поездки, стажировки, мастер-классы и творческие встреч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министерст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해방' 뒤에도 역사에 갇힌 사할린 한인들

책임과 변명의 인질극-사할린 한인 문제를 둘러싼 한·러·일 3국의 외교협상 이연식·방일권·오일환 지음/채륜·1만6000원

태평양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46년 12월, 승전 연합국인 미국과 소련은 '소련 점령지구 송환에 관한 미소 간 협정'을 맺었다. 패전국 일본의 점령지에 있던 전쟁 포로와 민간인들의 본국 귀환에 관한 협정이었다. 대상 영토엔 러시아 극동과 일본 최북방이 맞닿는 사할린섬도 포함됐다. 당시 "3만명에 가까운 사할린 잔류 한인 사회는 이체는 '해방 국민'이므로 패전한 일본인들보다 먼저 귀국할 것"이란 기대에 부풀었다. 그런 기대는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협정문에 명시된 송환 대상자는 '일본인 (전쟁)포로'와 '일반 일본인들'로 한정됐다. 무국적 조선인들의 귀향길이 막혔고, 일본 국적의 조선인들은 일본으로 가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70여년이 흐른 지금 생존자는 거의 없고, 그 후대의 처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다.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 뒤 사할린주 남부 해안도시 코르사코프에서 귀국길에 오른 일본인들의 행렬.(올리아 진,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2015) 채륜 제공.

<책임과 변명의 인질극>은 연구공동체 '아르고(ARGO) 인문사회연구소'의 연구위원 3명이 일제 강점기 사할린에 끌려간 조선인들이 해방 뒤에도 귀환하지 못한 역사적 비극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실증적으로 파헤친 연구서다. 지은이들은 기밀 해제된 옛소련 정부의 자료들을 포함해 한·러·일 3국에서 새로 발굴한 공문서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한인 귀환 문제가 당사국들의 동상이몽 속에서 꼬여가는 상황을 재구성한다. 그 결과, 당시 소련이 '노동력 부족' 내지 '점령지 생산력 유지'를 이유로 조선인들의 귀향길을 막았다는 기존의 통설을 뒤집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1945년 사할린 전투에서 일본군이 항복한 뒤 소련군 장교들이 전 일본 경찰들을 상대로 일본 경찰서장의 조선인 학살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사할린주 기록보존소 소장. 2014년 이연식 촬영. 채륜 제공.

예컨대, 송환 협정이 맺어진 다섯 달 뒤인 1947년 5월 소련 외무부 극동과는 내무부와 국가안보부에 비밀 서신을 보낸다. "(...)남사할린 지역엔 2만2777명의 한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스탈린 동지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들의 조선(Korea) 귀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송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련 내무부 장관의 답신이 갔다. "(...)송환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밝힙니다. 다만 남사할린 내 한인들이 다양한 소비에트 경제조직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소련국가계획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은이는 이런 서신 교환을 "당시 (소련) 내무부는 노동력에 대한 고려가 한인 송환을 반대할 정도의 핵심적 요소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한다.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 이전 시기에 사할린에 끌려가 벌목장에서 강제노역을 하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모습. 사할린주 기록보존소 소장. 2014년 이연식 촬영. 채륜 제공.

그런데 이들은 왜 귀환하지 못했을까? 여기엔 일본의 "교묘한 면책 담론"의 실태, 일본인 귀환이 완료된 지 두 달 만인 1950년 6월 한국전쟁으로 한인 송환 논의 자체가 무기한 보류되다가 결국 정주화 정책으로 바뀐 사정, 초기 한국 정부가 이들의 '모국 정착'보다는 '일본 정착'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본과 갈등을 빚은 사실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말하자면 "사할린 한인"은 식민 지배와 남북분단, 동서 냉전이라는 시대의 비극을 강제동원과 반세기에 걸친 집단 억류라는 극단적 형태로 체험한 집단"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구성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2008년 사할린 현지에서 무연고자 묘비 조사 및 현지 사망자 유골의 국내 봉환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때 찍은 묘지 사진. 채륜 제공.

지은이들은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표 필자 이연식 연구위원은 <한겨레>와 전화 통화에서 "이 책에 실린 다수의 사진들은 연구팀이 사할린주 기록보존소에서 발굴한 것들로, 모두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축소, 중단됐던 국가 차원의 피해 조사 및 연구, 지원 사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쓰쓸한 어버이 날'

인천 사할린동포복지회관서 고령의 동포 88명에게 카네이션

(3면의 계속)



부족한 운영비 3억 원을 한국 정부는 3년째 보전해 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5명당 1명씩 배정돼야 하는 요양보호사는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 낡아진 시설 개·보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연로한 사할린 동포들의 병치레가 잦아지면서 치료비를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한다. 그나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자동침대가 없다는 소식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사 직원들이 성금으로 자동침대 2대를 구입해 이날 전달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 지원으로 사할린에 가서 가족을 보고 온 김묘약 할머니(91)는 "사할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매년 15명뿐이어서 올해는 갈 수 없게 됐다"며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면 함께 지낼 수 있는 방이 복지관에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손정희 사할린동포복지회관 관장은 "시설 개·보수를 위해 운영자금을 긴급 투입할 만큼 어렵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인색해 자칫 문을 닫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4386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약 3000명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태안 꽃축제에 대한 추가 정보

지난 4월 27일에 태안 꽃축제에 대한 기사를 본 신문지상에 실은 바 있다. 오늘 추가 보도를 게재한다.

강한식 태안꽃축제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이며 네이처 농업회사 법인 대표이사는 한국에 영주귀국하신 동포 어르신을 안면도 톨립축제에 무료로 초대해주어서 동포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주한인회와 사할린우리말방송국을 위해 기부를 하려다,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불어 사업에 큰 지장을 주어 기부를 못해 죄송하다며 사할린에 계신 동포여러분에게 늘 건강하시길 기원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제17차 세계한상대회 사전등록 5월 14일부터 시작

- 10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서 열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이하 재단)은 제 17차 세계한상대회 사전 등록이 14일(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회 사전등록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월 2일(일)까지 세계한상대회 공식 홈페이지(www.hansang.net)를 통해 가능하다. 사전 신청 시 등록비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등록비 수입의 일부는 국내 소외계층 대상 장학사업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

한우성 이사장은 "대한민국 제조, 물류의 중심 도시인 인천에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내외동포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내외 동포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 17차 세계한상대회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10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사흘간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외 약 4천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가하며 기업 전시회를 비롯해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한상&청년 Go Together!,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대회 본부사무국(Tel. 02-3415-0052)과 카카오톡에서 '세계한상대회' 검색 후 친구 추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출처: 재외동포재단)

В печальный для нас день, 15 мая 2018 года после тяжелой болезни на 80-м году жизни ушла из жизни наш замечательный педагог-общественник незабвенная Ким Чун Ген (Тамара Васильевна).

Наша сов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благо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онесла невосполнимую потерю. Мы остались без советника, руководителя самодеятельных ансамблей, преподава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екрасного исполнителя корейских песен. Ее душевные качества, любовь к детям, инициативность, активность, энергичность, жизнелюбие были для нас примером.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Тамара Васильевна являлась председателем Общества поддержки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ман(Надежда)»,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класса дошколят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школы «Сэджон» при МООК, руководителем хора бабушек «Мугунхва».

Трудно поверить, что среди нас нет больше неугомонного талантливого лидера, прекрасного организатора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на навсегда останется в нашей памяти прекрасным наставником, надежным товарищем, всегда готовым помочь в любой ситуации. Светлая память о ней будет жить в наших сердцах.

Выражаем искренние глубок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Помним, любим, скорбим

Члены правления МООК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김춘경 씨가 2018년 5월15일 향년 80세를 일기로 한국에서 중환으로 별세하셨음을 부고합니다.

지도력과 조직력이 매우 강하신 김춘경 <소망>아동창작협력회 회장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회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세종>한글학교 강사로서 한국어 중급반, 유아교실을 잘 이끌시고, 시한인회 회원이셨고 노인정 할머니들의 공연 활동도 지도하셨습니다.

김춘경 씨의 낙천적인 모습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는 비애에 잠긴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2018년 5월 15일 한국에서 치료 중에 계셨던 김춘경 <소망>어린이창작협력회 회장, <무궁화>중창단 단장, <세종>한글학교 강사가 향년 80세를 일기로 타계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비애에 잠긴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사할린주한인회
사할린주한인노인회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С глубоким прискорбием сообщаем, 15 мая 2018 г., находясь на лечении в Корее, на 80-м году жизни скончалась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поддержки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ман» Ким Чун Ген (Тамара Васильевна).

Тамара Васильевна внесла немал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и сохран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понесла тяжелую утрату.

Выражаем глубокие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покойной.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местные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Областной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Общество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2018년 5월 18일 김춘경 씨가 한국에서 별세하셨다는 가슴 아픈 비보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춘경 씨는 1978년부터 1990년까지 12년간 <레닌의 길로>본사(현 새고려신문)에서 기자, 서한부 부장으로 활동했으며 동료들의 존중을 받아오셨습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동포사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오시며 특히 한민족 언어와 문화예술 유지 발전에 많은 힘을 쓰셨습니다.

김춘경 선배님은 항상 본 신문을 지키고 신문사 뒷받침에 나서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Руководство и коллектив Сахалинского гуманитар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выражают глубочайш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по поводу скоростижного ухода из жизни Ким Чун Ген (Тамары Васильевны). Она внесла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одготовку специалистов со зна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ыражаем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ственникам и друзьям. Скорбим вместе с вами.

장기간 우리 <무궁화>중창단을 이끌어주신 김춘경 단장님께서 2015년 5월 15일 한국에서 별세하셨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 슬픔을 금치 못합니다. 항상 활동적하시고 밝은 그분의 모습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비애에 젖은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무궁화>할머니합창단,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산하 노인정 할머니들

С глубокой скорбью восприняли весть о скоростижной смерти нашего друга и коллеги Ким Чун Ген (Тамары Васильевны). Выражаем глубок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Скорбим вместе с вами.

Члены РООСКЖ

реклама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